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9.21~23)

1. WTO 양자협의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중시재정(央视财经)은 일본 정부가 WTO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요청에 응하게 되었다고 인용 보도¹⁾
- o 양자협의를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, 양측은 3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고 협상 기간은 약 2개월임.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WTO 분쟁처리 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.
- o 한편 양국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, 일본의 수출 제재, 한국의 보이콧 재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
- 충격시각(冲击时刻)은 한국의 협상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해오던 일본이 드디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양자협의를 동의한 것은 진전된 상황이라고 보도²⁾
- o 양측은 다만 WTO 제소 건에 대한 협상에 동의한 것이며, 향후 WTO의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.
- o 한일 문제는 경제적 분쟁의 양상을 보이나 사실은 정치적 문제라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WTO가 한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본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
- 제일재정(第一财经)은 한국의 WTO 제소가 양국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보도³⁾

1) 「日韩贸易摩擦有转机? 日本同意在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下与韩方磋商」, 『央视财经』(2019. 9. 21)

2) 「本答应举行贸易谈判, 日韩对峙结束了? 事关国运的对赌才刚开始」, 『冲击时刻』(2019. 9. 22)

3) 「日韩贸易争端再升级, 美国不愿掺和WTO难调解」, 『第一财经』(2019. 9. 18)

- 대외경제무역대 중국WTO연구소 杨荣珍 연구원은 WTO 제소에서 한국이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
 - * 현재 일본은 단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뿐 아직 한국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고 일본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WTO에서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언급
- 국제경제교류센터 刘向东 부소장은 WTO 제소 후 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WTO와 같은 다자 기구를 통해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WTO의 권위와 기능으로는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
- 한편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소 李向阳 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분쟁의 해결은 ‘미국에 의한 조정’이 가장 효과적이며, 두 번째는 한국이 일본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주장
 - * 그는 현재 WTO 제소 기구는 거의 마비 상태로, 일본은 이미 WTO가 양국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
 - *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,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일본,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
 - * 분쟁이 지속된다면 한일 양국의 경제 의존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. 그러나 한국 내 반일감정이 커서 한국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(骑虎难下)에 처한 것이라고 언급
-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전략연구소 李成日 연구원은 한일 분쟁에서 미국의 무관심한 태도는 일본의 행위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. 또한 아베와 트럼프 모두 무역분쟁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